

국통조 90-12-108

宗教가 北韓社會에 끼치는 影響



研究責任：尹 以 欽
(서울대학교수)

1990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책을 내면서

80년대 후반 北韓은 각지 寺刹과 教會·聖堂에서 宗教行事を 개최한다고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宗教集會에 외국인·해외교포들의 參席도 勸誘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알려진바와 같이 制限된 場所에서 制限된 形態로 진행되지만, 오랫동안 宗教行爲를 處罰해온 北韓에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北韓의 宗教政策에 최소한 部分的인 變化라도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外面的·部分的 變化가 北韓 社會內部에 어떠한 影響을 어느 程度로 미칠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宗敎學者에게 特殊課題用役을 위촉한 結果報告書이다.

그러나 이 책에 표명된 견해는 研究 責任者의 個人的 意見이며, 當院의 政策的인 評價나 見解가 反映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0. 12.

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緒論：北韓社會와 宗教의 理解	3
(1) 北韓宗教의 變化段階	3
(2) 孤立主義의 宗教的 性格	6
(3) 宗教의 公認과 體制의 相對化	8
2. 宗教의 活性化와 體制의 相對化	11
(1) 共產體制의 相對化要因	11
(2) 北韓宗教의 變化要因	20
3. 北韓宗教의 變化類型	30
(1) 體制宗教	30
(2) 숨은 信仰共同體	32
(3) 自由主義宗教	35
(4) 反體制宗教	38
(5) 自立宗教	42
4. 結論：北韓의 開放과 宗教의 自律性	49
〈참고문헌〉	53

1. 緒論 : 北韓社會와 宗教의 理解

(1) 北韓 宗教의 變化段階

북한에서 종교가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현재 북한 종교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는 시각에 따라서 그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사회에 종교가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조직의 운영과 신앙 활동에 自律性을 가진 宗教團體가 있는가 하는 데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 이러한 자율성의 기준에서는 북한에 종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¹⁾ 그러나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하면서부터 평양에 봉수교회를 비롯하여 교회가 서고 불교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예불을 하도록 허락되었다. 비록 이들이 종교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수의 신앙인들이 매우 제약된 현실 조건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북한의 종교 실상이다.²⁾

북한 당국은 1945년 해방이후 4단계에 걸친 종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종교들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었다.³⁾

가. 抵抗期 (1945-1953)

해방과 더불어 북한의 종교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건국에 참여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反宗教 政策을 실행하였고, 이에 종교들은 미약하나마 抵抗運動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 있었던 반공학생운동을 그 효시로하여 이어졌지만, 그 이후 공산정권

의 가혹한 종교 박해로 저항운동은 지하로 들어가 버렸다. 이 시기의 저항운동은 당시의 천도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의 종교단체 해산과 그에 따른 많은 순교자들의 출현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1945년 5월9일 북한 최대의 수도원인 원산수도원이 완전 폐쇄되었고, 1950년 전쟁의 발발에서부터 53년 전쟁직후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 순교자들이 비록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명히 이들은 공산박해 세력에 대한 저항의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나. 解體期 (1953-1970)

압록강까지 후퇴했다가 평양에 돌아오면서부터 평양 정권은 거침없이 종교를 탄압하여 북한에서 종교를 사실상 해체하여 버렸다. 1959년 정하철의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라는 소책자에서 反宗教 理念을 정립하였다. 이어서 1967-70년에 실시된 “주민재등록사업”에서 종교인들에게 등급번호--예, 기독교인 37, 불교인 38, 천도교인 39--를 부여하여 그들을 완전히 감시하게 됨으로써, 종교인들이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렇다 할만한 종교적 사건이 없었다.

다. 被利用期 (1971-1987)

60년대 말까지 주민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친 북한정권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남북회담을 비롯하여 재일교포 복송, 국제경제 관계의 유지등을 통하여 문호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적인 관계에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종교였다. 북한 정권은 이 시기에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조선기독교연맹등 많은 종교단체들로 하여금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1972년 12월 27일 선포된 신헌법 제57조에 “信仰

의 自由와 反宗教 宣傳의 自由를 가진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레닌의 교시이지만, 이를 헌법조항에 명문화한 것은 북한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이율배반적인 종교정책을 펼쳐왔다.

1985년을 기점으로 북한정권은 주로 북한출신 재미교포 기독교 인사들을 북한에 초청하여 家庭教會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권은 反韓 態度를 가진 개인이나 종교단체들을 주로 선택하여 초청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방북인사들이 여행후에 反韓 發言을 국내외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교회 자체나 또는 해외교포들의 가정교회 방문에 관한 보도가 북한의 언론기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단적으로 북한 정권이 종교를 外交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 再生期 (1988년 이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1988년 이전의 북한 종교는 적어도 조직의 운영과 信行의 자율성을 지닌 단체로서의 宗教 또는 宗團은 없었다. 다만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소수의 종교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정부가 원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종교정책이 자체 한계에 도달하게 된 계기가 1988년을 기점으로 오게 되었다.

1988년 11월에 평양에 개신교의 봉수교회가 섰으며, 이어서 천주교의 장충성당이 섰다. 또한 1989년 1월 15일 成道節 기념법회를 전국사찰에서 갖게 되었고 북한 방송이 발표하였다.⁴⁾ 이 세가지 사건은 6.25 동란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들로서 매우 중요한 文化史的 意味를 갖는다. 1989년 7월 평양에서 있는

세계청년축제에 찾아올 국제손님들에게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취해진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이 세가지 사건들은 그러한 북한 정권의 정책 의지와는 관계 없는 자체 영향력을 북한 사회에 끼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갖게 된다.⁵⁾ 1988년 이후에 북한에서 국민들이 볼수있는 宗教 集會所로서의 教會를 건축하여 宗教儀式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을 때,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때와는 다른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갖게 될것이 분명하다. 이 논문은 宗教的 信行이 公認될 때 오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하여 살펴 보려 한다.

북한에서 종교가 비록 일정한 한계 안에서라도 허용되는 경우 그것은 곧 北韓 社會制度의 相對化를 가져오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폐쇄성은 그 자체가 分派宗團, 또는 섹트 (sect)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孤立主義의 宗教的 性格

섹트로 규정될 수 있는 종교집단은 외부 사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성원으로 결성된다. 이처럼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는 섹트의 성원들에게 외부 사회인들은 모두 타락한 존재들이고, 외부 세계는 모두 저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섹트의 성원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내적으로 결속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이종으로 소종단으로 하여금 이른바 分離主義, 또는 孤立主義에 빠지게 한다. 우선 일반 사회와 다른 기준에서 뚝뚝 뭉쳐서 사회를 저주하는 소수집단의 태도를 일반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외부로 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섹트의 성원들은 오직 자체내의 결속만이 그들의 세계관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부터 점점 더 분리시킨다. 이처럼 섹트에

속하는 종교 집단들은 자체 성격과 대외적 태도에 따라 分離主義를 견지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 사회가 섹트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북한은 전체 국민에게 실로 놀라울 정도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소개하는 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어린이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된 학습태도를 지키고 있으면서 모든 생활을 “아버이 수령님의 은혜”에 이어지게 교육하고 있다. 1990년 가을 남북한 축구팀이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경기를 할 때 북한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통일을 눈물로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편으로 당혹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이처럼 모든 국민이 하나 같은 感情의 程度를 가질 수 있을까? 이 해답은 북한사회가 일종의 섹트, 곧 종교적 사회 집단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북한이 고립주의를 지금까지 견지하여 온 것은 북한의 정치 이념이 섹트적인 分離主義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섹트의 분리주의는 기존사회 질서에 불만을 야기시키고 이를 파괴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혁명의 주체세력은 섹타리안 (sectarian) 들이다. 섹타리안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이상과 자기절제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기성 질서에 반대되는 이념에 스스로 동참하는 自願者들이다. 이러한 이념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하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모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혁명 주체세력의 소수 엘리트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높은 革命理想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는 공산주의를 혁명을 통하여 지상에 실현한지 반세기 만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공과 그리고 동구라파에서 모두 공산주의의 전폭적인 포기나 또는 근본적인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1980년대에 와서 끝나게 된 이유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국민에게 소수 엘리

트에게서나 적용 될 수 있는 높은 이념적 또는 도덕적 기준을 강요한데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사상적 약점은 그 지나친 낭만주의적 태도에 있다. 모든 국민이 과학적 사상으로 교육될 때, 미신에 지나지 않는 종교를 믿지 않게 되고, 모든 국민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될 때 직업과 사회적 직능에 관계없이 평등한 자격으로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 사회와 역사를 너무나 간단한 도식으로 그린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공산주의 이념을 사회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어려움을 소수 엘리트들과 같은 정도로 극복할 것을 강요하여 왔는데, 이는 공산주의의 인간 이해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한 가치관을 요구한다. 많은 가치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절대화하는 태도로—이를 選別的 一神教 (henotheism)라고도 하는데—국민을 통치하는 사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外的衝擊과 內的刺戟이 있을 때, 매우 허약하게 그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20세기 중엽의 파시즘이 그 좋은 예이며, 지금 붕괴되어가고 있는 과거의 공산권 질서가 그 또 하나의 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헤노테이즘에 있다. 파시즘이 개인의 삶의 목적이 국가의 영광을 위하는데 있다고 가르칠 때, 공산주의는 그 목적이 프로레타리아의 영광에 있다고 가르쳤다. 이 처럼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의미를 인위적으로 한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같다.

(3) 宗教의 公認과 體制의 相對化

북한 사회의 섹트적인 分離主義와 選別的 一神論의 인위적 이념이 현재의 북한사회 체제를 이념적으로 성격지워주고 있다. 분리주의와 체제 절대성의 인위적 강조가 합하여 오늘의 북한 사회를 지상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폐쇄

사회로 만든 것이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북한의 체제는 절대적이다. 어느 국가나 자국의 체제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폐쇄사회에서는 자기 체제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만 그 유지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폐쇄사회의 체제 절대성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절대 체제에 위협적인 충격을 주게 될 몇가지 요인들이 1988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종교의 공인과,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자유주의의 도입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도입이라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독으로 북한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북한 사회에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특히 宗教는 북한의 閉鎖的 絶對體制에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의 충격을 줄 것이다.

종교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볼때, 하나의 絶對 信念體系이며 綜合的 絶對價値觀이다. 따라서 종교는 어떠한 사상이나, 예술, 문화, 가치관, 그리고 지상 권력도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신념의 체계 안에서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본질적으로 어떠한 정부도 종교적 신념체계 안에서는 그 절대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지상 권력은 오직 하느님의 나라나 불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臨時 方便의 相對的 성격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에서 宗教를 비록 제한된 형태로라도 公認하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체제의 절대성을 지켜온 북한정권의 절대성이 제한된 형태로라도 상대화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가 단독으로 북한사회를 상대화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사회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제 종교가 북한에서 다른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사회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註〉

- 1) 윤이흠, 「종교 단체와 종교 생활」,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506~7쪽.
- 2)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한국천주교의 시작을 어디에 기준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같다. 한국천주교회의 공식입장은 1784년 조선 교구가 설정된 해로 삼는데 반하여, 이벽을 중심으로한 초기유학자들의 講學집단을 그 시작(1777)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89쪽.
- 3) 윤이흠, “3. 종교의 변화과정”, 514~25쪽.
- 4) 그 전해인 1988. 5. 23, 석가탄신일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가탄신 기념법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는 전국적 단위가 아니었으므로 89년 1월의 성도절부터 종교의식이 승인된 것으로 보았다.
- 5)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1988, 107쪽.
고태우, 『북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은석출판사, 84쪽. 「성황당」의 혁명극 내용은 북한이 종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다.

2. 宗教의 活性化와 體制의 相對化

(1) 共產體制의 相對化要因

현대에서 한 국가 사회가 외부의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유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현 고립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섹타리안적인 고도의 긴장된 생활태도를 전체 국민이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중파적인 고립주의 태도는 그 자체의 역사 안에서도 언제인가는 자체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내부로부터 나오는 개혁 요구의 도전을 막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敎理敎育을 통하여 자체 결속을 다짐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지도 체제의 세습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부로 부터의 요구에 의한 변화 보다는, 외부로 부터의 변화 요구가 더욱 직접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북한 사회는 그 어느 공산 국가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외부로 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북한 사회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남한이 2등한 사실을 북한 국민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북한 국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외부 세계로 부터 차단시키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북경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던 수백명의 북한 선수단원들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사회에 알려지게 마련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형태로 국제관계를 북한이 가지게 될 때, 이웃 공산국가들의 체제변화의 사실이 북한 사회에 알려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도 개혁의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 여름, 필

자가 중국 연변 지방의 도문을 방문하였을 때, 그 곳의 조선족 여인들이 두만강의 도문교에서 리어커로 짐을 실어 보내고 받으면서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은 냄비, 의류, 신발과 같은 공산품들이었으며, 북에서 오는 물품은 명태, 오징어와 같은 건어물들이었다. 이들 조선족 여인들은 모두 두가지 면에서 의견이 같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홍위병 이후의 개방정책에 의하여 중국에서 살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국민은 마치 홍위병 때의 중국에서 살던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의 이러한 판단은 그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얻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판단이 북한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이 조선족들과 같은 판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공산권의 붕괴 현상에 대한 소식이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외부로 부터 전해지는 공산세계 변화의 소식은 지금은 완강한 자체 통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 부터의 충격이 북한 사회에 흡수되기까지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외부로 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民族主義를 강조하며, 둘째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經濟構造의 改善에 국한하여 수용하려하며, 셋째는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요청되는 自由主義를 제한된 형태로 수용하려 할 것이며, 넷째는 자유주의의 수용의 사회적 증거로 宗教의 自由를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사실상 소련과 동구라과 공산국가들이 자체 개혁의 과정으로 겪어왔던 과정들이었다.¹⁾ 다만 북한과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동구라과와 소련은 전통적으로 카톨릭이나 회랍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과 같은 종교들이 국

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의 개방이 자유주의의 수용에 앞서 있었다.

이러한 네가지 단계는 북한 사회체제를 상대화시키는 요인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종교는 다른 세가지 요인들과 혼합하여 북한 사회체제를 상대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편의상 위에서 언급한 相對化四大要因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民族主義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사회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普遍的 政治理念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80년대 말에 공산세계가 붕괴에 직면하게 된 것은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정치체제로 수용된지 반세기만에 그 통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이념이 그 사회적 통제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은 民族主義와 宗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 국가들은 民族과 宗教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슬라브는 주로 회랍 정교회를 그들의 종교로 삼고 있으며, 발칸 지역의 민족은 루터교회, 루마니아인들은 카톨릭, 그리고 중앙아시아인들은 이슬람, 이처럼 민족과 종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소련은 각각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민족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동구 공산세계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多民族 多宗教 지역에 공산주의라는 普遍的 政治理念으로 재편성된 획일적인 사회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반세기만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 실패의 원인은 각 민족이 그들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이른바 민족주의에 있다.

공산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그 사회를 주도하는 민족의 主導 民族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少數民族主義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탈린 시대에 이미 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한 사회정책이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연해주에 있던 소수민족인 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중앙아시아에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소련인을 위한 소수민족 정책을 써왔던 것이다.²⁾ 해방이후에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인구가운데 조선족이 75%였으나 1983년에는 47%로 줄었다.³⁾ 이처럼 중국정부는 항일운동의 91%를 차지하였고 해방이후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의 90%이상을 차지하던 연변지방을 조선족자치주로 정하고 나서 이지역에 漢族의 移住를 크게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멀지 않아 조선족이 소수주민으로 떨어지게 하고있다. 우리는 이 두개의 예에서 공산국가의 주도 민족의 민족주의가 그들을 중심으로한 공산체제 옹호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제 옹호 기능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공산주의 체제를 개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해진다.

공산 사회의 분해는 少數民族主義에서부터 비롯된다. 공산주의 보편이념에 제일 먼저 저항하는 것은 소수민족주의이다. 주도민족이 그들을 위한 공산정책을 실시 할 때, 이에 실제로 반대하는 것은 각 지방의 소수민족들의 민족의식이였다.⁴⁾ 그 대표적인 예가 소련 영토 안의 중앙아시아 지방의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들이였다. 이러한 민족이 슬라브 민족과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소수민족주의는 종교적 신념과 혼합되어 강력한 저항의식 또는 민족 주체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이 가장 험한 종교탄압을 하던 스탈린 시대에도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들의 종교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었던 이유였다.

민족주의는 언제나 그 자체만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언제나 자국민의 문화나 정부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위기의식이거나, 민족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또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지켜온 문화와 가치관의 수호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치와 연합하여 힘을 발휘하게 된다. 소수민족주의는 주로 소수민족 집단이 외부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른바 자기보호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주의가 힘을 발휘할 때는 이미 그 집단에 있어서는 보편적 정치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보다 그 집단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집단의식이 우선하게 되는 순간, 공산주의는 더 이상 주도가치의 자리에서 벗어나 相對化된다. 소련에서 소수민족의 민족주의가 특히 종교신앙과 연결 될 때, 소련연방에서 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⁵⁾ 같은 맥락에서, 동구라파에서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 때, 동구라파의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의 주권과 더불어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까지 부르짖게 되었다.⁶⁾

나. 經濟構造의 改善

分配正義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체제는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절대빈곤을 퇴치한 이후에 공산 체제는 국민에게 생산의욕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정체현상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이 소련과 동구라파 및 중국에서 일어난 지난 40년간의 일이었다.⁷⁾ 서방세계의 경제성장에 비교하여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과 소련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왔다. 1970년대에 오면 이미 공산세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하여는 자본시장의 경제원리를 도입해야할 필요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 제한된 개인 경작을 허용하는 등의 경제개혁의 실험안들이 실시되어 왔다.

공산체제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두가지 逆機能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⁸⁾ 그 하나는 과거의 사회적 유산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공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인 사회혁명을 수행하는 데, 이를 위하여 全體主義 統治體制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19세기의 帝國主義와 그에 편승한 당시의 무분별한 資本主義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응이 전체주의 정치체제로 나타나게 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산 체제가 완전한 통치체제가 될 수 없는 이념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두번째는 공산 사회에서는 국민이 소수의 열성적 엘리트와 절대 다수의 무감각한 국민으로 나누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회적 이상과 정치이념을 실현하려 하여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상실되게 된다.

공산 사회의 침체는 두가지 면으로 확산되어 왔다.⁹⁾ 한편으로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특권화가 진행되어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절대 빈곤을 벗어난 상태에서 안주하여 버리는 정신적 안일주의와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흐름은 결국 공산 사회의 전체주의 체제를 고착화 시키게 하고, 따라서 공산주의 이념의 혁명성은 점점 체제보수적인 방향으로 굳어지게 된다. 보수적인 전체주의 사회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생산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낙후현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소련과 중국이 자본경제시장의 원리를 제한적으로나마 수용하려하고, 동구라파의 여러 국가에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自由主義

자본시장 경제원리를 제한적으로나마 수용하려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원칙의 수정이나 포기를 의미한다. 자본시장 경제원리는 통제경제체제에 반대되는 경쟁 원리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자유주의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다

시 말해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안고있는 경제적 낙후성과 사회적 경직성, 그리고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길은 전체주의적 획일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絶對化하는 社會體制이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 이념과 평등사회에서 사는 인간상에 대한 열망은 매우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평등이념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평등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미 지성적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공산사회의 전체주의적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념을 인위적으로 절대화하는 이른바 選別的 一神教(henotheism)의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多元主義를 수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우리는 自由主義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유주의의 수용은 전체주의 사회로 변한 공산국가들의 자체 개혁에 불가피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개혁은 사회 구조적으로는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길이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이는 다시 공산주의 이념이 사회의 여러 이념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自由主義는 共產主義를 근본적으로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相對化하는 이념적 기능을 갖는다.

라. 宗教的 欲求

공산주의를 상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적 신념은 자신 이외의 그 어떤 것의 존재 가치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가

진다. 다만 다른 존재 가치의 상대성만 인정할 따름이다. 이러한 종교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공산 정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 공산 사회체제와 정권은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나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歷史的 手段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종교가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있는 한계이다.

더구나 종교는 그 어떠한 사회 정치적 이념보다도 강력한 신념과 포괄적인 신념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회 단체 보다도 강력하고 폭넓은 社會的 動員力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진 종교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그 초기부터 심각한 관심을 지녀왔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지배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회적 실체라고 공격하였으며, 레닌은 종교를 일종의 아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종교의 본래적 동원력을 마비시키려 하였었다.¹⁰⁾

마르크스와 레닌의 종교해석이 그후 공산 국가에서의 종교 정책의 포장도로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념적으로 공산국가에서는 종교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오래 동안 하여온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종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 사회적 동원력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종교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북한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 말에 이러한 방향의 종교정책이 이념적으로 정비되게 되었다.¹¹⁾ 한마디로 공산국가의 종교 정책은 종교를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종교는 絶對信念體系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절대화하고 있는 공산국가에서 종교를 공인하는 경우, 공산국가 안에 공산주의 이념 이외의 또다른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절대이념 이외의 절대

이념을 사회체제 안에 공인하는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이념을 공산사회 안에서 상대화하는 결과에 이른다.

이처럼 종교를 사회에서 공인하는 경우에 통치권력을 상대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이유 때문에 종교를 박해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미 발견된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황제의 사당에서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집단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또 다른 왕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탄압하였으며, 역으로 종교의 공인은 공산 국가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상대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인간성은 바꾸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가 공인되는 경우에 잠재적으로 숨어있던 국민의 종교적 욕구가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욕구의 확산은 경제생활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통제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혼합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경제개선과 자유에 대한 요구는 그들을 대변할 주체세력이나 조직이 국민 안에서 결성되는 社會的 過程을 거쳐야 비로소 거국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데, 이러한 과정은 특히 전체주의 공산사회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공산 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이 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적 욕구는 각 국가나 민족이 공산주의 이념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종교전통을 통하여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반공산주의 세력 형성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산국가들에서 반체제 운동들이 종교세력과 연계하여 일어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¹²⁾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자유주의와 경제개선 요구를 쉽게 수용하게 되

는 종교적 욕구가 민족주의와 손을 잡게 될 때 공산사회가 가장 무서운 자체붕괴의 세력을 만나게 된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주도민족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소련 연방 내의 소수 민족들은 그들의 민족적 주체의식과 종교적 신념이 합하여 소련연방으로 부터 소수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른다.¹³⁾ 이는 공산주의와 같은 보편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획일화된 질서를 거부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닌 각각의 민족들이 그들의 문화적 주체의식을 되찾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사회를 多變化시키는 결과에 이른다.

(2) 北韓宗教의 變化 要因

공산주의 北韓社會는 비록 스스로 고립되어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산권의 전체적인 변화와, 북한 사회의 내적인 개혁의 요구가 누적되어 조만간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사회가 변화를 하게 될 때는 소련과 동구라파의 공산국가들이 지나온 변화의 요인들과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공산사회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공산체제의 상대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외형적으로는 공산사회의 다변화 현상으로 가시화 된다. 공산사회의 다변화는 한마디로 공산 체제의 절대성과 전체주의 이념의 와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 사회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앞에서 80년대와 90년에 나타난 공산주의 이념의 상대화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대화의 과정에 종교가 차지하는 기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북한의 종교는 다른 공산국가의 종교들과 달리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생력보다는 외부로 부터의 자극에 의하여 크게 그 성격이 좌우되게 된다.

이러한 근거에서 북한의 종교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북한 정권의 종교정책
2. 공산권 변화로 인한 북한 사회의 변화
3. 해외 교포 종교단체의 북한 종교 지원
4. 남한 종교의 북한 선교
5. 북한 종교의 자체성장

이들은 북한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의 순위로 열거된 것이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가. 北韓政權의 宗教政策

제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종교는 전적으로 평양 정권의 종교정책에 의하여 그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어 왔다. 1988년 이후의 종교 공인정책 역시 북한의 내적인 사회개혁의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다.¹⁴⁾ 88년 이후 북한의 종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두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북한의 종교가 아직 88년의 공인상태의 초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88년의 공인정책 이후 북한 정권이 아직 그들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확정지을 만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정책 방향 자체가 미정인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앞으로의 북한 종교의 체질과 성격은 앞으로의 북한 정권의 종교 및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한 북한 종교의 被動性은 북한 종교의 自體成長力이 배양될 때 까지 지속될 것이다. 북한 종교의 자체역량의 배양은 지금 상태로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共產圈 變化로 인한 北韓社會의 變化

1990년 11월 현재 까지 북한 정권은 공산권의 변동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세력에 의한 사회주의 질서의 파괴이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 혁명로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언하고 있다.¹⁵⁾ 소련과 동유럽의 제국들이 공산주의 통치체제를 포기 또는 근본적인 수정을 하고 있는 추세를 북한 주민들이 언제까지나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 경제의 개선을 위하여는 공산 국가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와의 경제 교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형태로나마 평양 정권은 외부와의 문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¹⁶⁾

북한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88년의 종교 공인정책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89년과 90년에 일어난 동독의 서독에 의한 통합이나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들의 변혁을 북한 사회가 깊이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88년의 종교 공인정책보다 개방된 종교 정책을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채택하리라는 전망이 없다.

따라서 동구권 변화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도만큼 북한 주민들의 의식 안에 자유주의가 수용될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수용된 정도 만큼 북한 주민들의 종교적 욕구가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현재의 철통같은 북한의 통제 사회분위기로 보아서 아마도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 海外僑胞 宗教團體의 北韓 宗教 支援

1985년을 기점으로 서방 세계에 북한의 가정교회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¹⁷⁾ 이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포 기독교 신자들과 世界基督教聯盟 WCC의 관계요원들이 북한에 초청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북한 정권으로 부터 사실상 의도적으로 초청된 이들 방북인사들이 북한의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본 사건들이 북한의 국내 언론기관에는 한번도 보도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들 방북인사들은 그들의 가정교회 방문과 방북한 여행경험, 그리고 그들이 파악한 북한 실정들을 남한과 서방 언론들에 크게 보도하곤 하였다. 이처럼 해외교포들의 북한 교회와의 접촉은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북한 사회 내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북한 사회 외부에는 최대의 선전효과를 누리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적어도 88년까지 매우 적중하였다.

88년 종교 공인 정책은 결국 85년 부터 활성화 되었던 해외 교포 기독교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얻은 북한 정권의 實利的인 경험에 크게 기인한다. 해외 교포들의 잇단 북한 방문의 결과로 해외 개신교 교단과 가톨릭 교단에서 북한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되었다. 북한 정권 측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종교 공인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악명을 벗는 계기를 찾게 되었다. 이한 雙務的인 關係에서 종교 공인 정책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누누히 지적하였듯이, 앞으로의 북한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크게 변하리라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해외교포와 해외 친북한 종교단체들의 북한 종교 지원이 북한 종교의 성격을 더 이상 변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 같지 않다. 말하자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 교포의 북한 지원은 88년의 종교공인 정책의 유도 이상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라. 南韓 宗教의 北韓 宣教

1960년대부터 남한에는 북한 선교단체들이 주로 방송을 통한 북한 선교와 성서를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¹⁸⁾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는 북

한의 가정교회 소식과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의 활력에 힘입어 거의 모든 기독교 교파와 가톨릭, 그리고 불교교단들이 북한 선교기구들을 갖게되었다.

80년대에 설립된 북한 선교기구들은 주로 성경을 출판하여 직접 또는 간접 경로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며, 가능한 한 선교사를 북한에 보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 두가지 모두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 선교단체들은 중국의 조선족 사회를 매체로 간접적인 북한선교정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중국과 소련에서 한국의 종교인들이 자국에 와서 지나치게 선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종교인의 공산국가 방문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외교적 압력을 1990년 5월에 받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남한 종교단체들의 북한 선교는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전망이 매우 어둡다.

다만 1990년 여름 기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하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홍콩과 같은 제삼국을 거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이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기독교 이름으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 대한 同胞愛의 전달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동포애의 표현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주민에게 얼마나 전해졌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단체의 동포애의 전달이 북한의 종교를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동포애의 전달 역시 북한 종교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 北韓宗教의 自體成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종교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88년 종교공인정책 이후에 제한된 교회와 불교 사찰에서 정기적인 종교 의식을 갖는 것

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취약한 종교이다.

이러한 현재의 북한 종교가 스스로의 힘을 성장시키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현행 북한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의 종교가 당과 정부 당국의 허가없이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북한의 형법에 의하면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實定法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8조는 “종교 단체에서 재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 노동에 처한다”로 명기하고 있으며, 제 259조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현행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88년의 종교 공인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만큼만 종교를 공인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매우 취약한 북한 종교가 스스로 자체의 역량을 길러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이르다.

이처럼 북한의 종교가 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종교는 한 사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종교 스스로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상대화 시키고 공산 사회를 다변화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종교의 역할과, 역으로 종교가 북한 사회로부터 받을 영향을 각각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이 두가지 논의에 근거하여 앞으로 북한의 종교가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인가를 헤아려 보기로 하겠다.

〈註〉

- 1) 소련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이 국민에게 조국을 게르만의 침략에서 부터 보호할 것을 호소하는 소련민족주의를 보여주었다. 레닌이 프로레타리아의 보편 이상을 강조함에 따라, 소수민족들은 이것이 러시아민족이 소수민족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소수민족주의가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다시, 2차 대전이후에 동구의 모든 나라가 프로레타리아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점령에 의하여 공산 블록에 편입된 결과이기 때문에, 동구에 反蘇民族主義가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가 헝가리, 체코, 그리고 폴란드에서 보여진다. 또한 중공과 소련의 분쟁이 사회주의 세력의 틈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켜 민족주의에 의한 분리를 들어냈다. 특히 중공과 소련의 분열은 각각 사회주의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종교를 탄압한다는 면에서는 같았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종교억압 정책으로, 그리고 중공에서는 문화혁명으로 나타났다. 종교탄압을 자본주의의 침략에서 사회주의를 보호하는 수단의 하나로 여긴 것이다.

일국 사회주의가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가 사회주의가 주변의 국가에게서 원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체 내에서 경제 건설을 하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에 이르는 하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요소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전시공산주의 체제의 엄격한 통제를 완화하고 NEP정책이 채택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이다. 최근의 동구권과 소련의 변화는 이제 사회주의적 이념의 수정과 더불어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필요를 수용하면서 이에 따른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羅竹風 編,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 上海社會科學出版社, 1987, 1~9쪽; 梶村 昇, 「イデオロギ-社會の宗教-中國の場合」, 『海外事情』, (1989, 10)는 중국 당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련의 종교담당고위관리가 스탈린 시대의 종교 탄압이 실제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192년의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한 점 (복음신문, 1988. 11. 27), 그리고 1990년 9월 26일에 소련에서 입안된 종교법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 1990. 10. 17), (크리스찬신문, 1990. 5. 19). 이 법은 종교집단이 사회단체나 협의

를 결성할 수 있도록하고 종교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종교의 학교 내에서의 강의와 선교활동을 포함한 종교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 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구시대의 유물론, 또는 자본주의적 폐해의 유산으로 취급되어 사라져야 할 종교가 이제 실재상 존재권리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결과 앞으로 소련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면에서 일단 프롤레타리아 이념의 전제가 아니라 이념의 다원적 존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 2) 키무라 히데수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한인」, 서대숙 편, 『소비에트 한인백년사』, 태암, 1989, 116~123쪽.

극동문제연구소, <소련·동유럽총람>, 1989, 576~579쪽.

그리고 발트 삼국과 크립반도, 카프카즈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Geoffrey Hosking,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蘇聯史』, 김영석 譯, 홍익사, 1988, 251~254쪽 ; 극동문제연구소, 563쪽.

- 3) 연변대학,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백두산 : 제천, 자연, 사람』 미진사, 1990, 87쪽

- 4) 소연방이 성립되면서 소수 민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공산주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제민족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소련연방의 형성은 소수 민족의 소멸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쇼비니즘으로 소수 민족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티베트 민족에 대한 정책에서도 들어난다. 민족주의와 전통 마르크시즘과는 상호 배반적이다. 소수 민족의 저항에 관한 것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Pedro Ramet ed.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Duke Uni. Press, 1984, 59~120쪽 ; Geoffrey Hosking, 4장, 9장, 14장 ; 극동문제연구소, 564~573쪽 ; 로버트 오어, 『현대중국의 종교』, 신대균 역, 路出版, 1987, 121~128쪽.

- 5) Pedro Ramet, pp82~103 ; 세계일보 1990. 3. 13.

屈 健三, 「ソ連における民族主義の擡頭」, 『海外事情』, 1989. 4.

- 6) 폴란드는 56년 모스크바와의 평등, 호혜, 및 내정간섭을 주장하였으며 68년, 76년에 민주화, 자주노선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졌으며, 헝가리 역시 56년 소련에서부터의 자주화 노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유고의 자주적 사회주의 건설 노선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종교의 역할이다. 소련의 쇼비니즘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의 구심점으로써의 기능을 한 것이 종교였다. 헝가리의 경우에 카톨릭의 민첸티 추기경이 저항의 상징이었다. 체코의 경우에도 가톨릭

릭의 세력이 저항의 중심체로 역할하였다. 공산화 이후 많은 사제들과 목사들이 직위 해제되는데 이들이 지하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저항하기도 하며, 80년에 폴란드의 요한 바오로 2세가 피선된 뒤에는 바티칸에 최대의 반공주의자가 출연했다고 주장하며,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였다. 폴란드의 가톨릭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듯이, 80년 당시에도 교회는 노조와 결합하여 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Pedro Ramet, pp123~139 ; Geoffrey Hosking, pp.333~337 ; 극동문제연구소, 951~964쪽, 1030~1036쪽, 1101~1104쪽.

- 7) 송병락, 『자본주의 공산주의』, 동아출판사, 1990, 163~205쪽.
- 8)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운동으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시장의 메카니즘이 지니고 있는 무질서와 무자비성이다. 이것은 결국 공황이나, 노동자들의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19세기의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소유를 사회화 시키고 경제에 있어서 무계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계획경제는 그 부산물로서 관료주의와 이관료들의 귀족화, 특권화를 이루게 된다. 중앙의 계획경제는 중앙으로의 권력의 집중을 불러와 전체주의적 체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는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무사안일주의와 태만, 비능률로 이르게 하고 말았다. ;
김세균 외, 「오늘의 사회주의 : 위기인가 전진인가」, 『사회와 사상』, 1990. 1. 통권 17호, 70~76쪽.
- 9) 노멘클라트라 체제와 이것의 귀족 특권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안일주의와 무기력에 대해서는, Geoffrey Hosking, 451~457쪽 ; 嵯峨 洌, 『소련사회는 변화하는가』, 신승권 역, 예진, 1890, 160~209쪽.
- 10) V. I. Lenin, *On Religion*, Progress Publishers, Moscow, 1965, 7쪽 ;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On Religion*, Schocken Books, New York, 1964, 41~42쪽.
- 11) 윤이흠, 520~522쪽.
- 12) 종교가 반체제 운동의 구심체로 작용한 것은 註 4)와 註 6)에서도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초기에 탄압되다가 이 후에는 전반적으로 공존의 길을 가게된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종교가 구시대의 유물로서 사라져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라는 다른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체제 중심화할 가능성이 항존하는 것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嵯峨 洌, 235쪽.

- 13) V. Stanley Vardys, "Catholicism in Lithuania", *Aspects of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ed. by Richard H. Marshall, Chicago Uni. Press, 1971, 383~385쪽 ; 한국일보(1989. 9. 19),
- 14) 기독교연합신문(1988. 11. 13)은 중국의 한교수의 서한을 통해 북한의 교회는 선전도구이고, 해외의 헌금을 유치하는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앙의 자유 또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복음신문(1989. 3. 12)
- 15) 동아일보(1990. 11. 6. 화) 12쪽, 11월 1일 평양방송은 "자본주의 생활 양식은 혁명을 말아먹는 독약"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표방하였다.
- 16) 김세원, 「대외 경제 관계와 '텔레마」, 『북한개론』, 197~199쪽.
- 17) 윤이흠, 524~25쪽.
한겨레신문(1989. 4. 26)
한국일보(1989. 1. 15)
한국교회신문(1989. 5. 28)
카톨릭신문(1988. 7. 10, 1988. 7. 17)
- 18) 복음신문(1988. 10. 9)
기독교신문(1988. 10. 30)
크리스찬신문(1988. 10. 3)
크리스찬신문(1989. 10. 7)
크리스찬신문(1989. 11. 25)
기독교연합신문(1989. 11. 26)

3. 北韓宗教의 變化類型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북한의 종교는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적인 자극에 의하여 그 성격이 결정지워질 것이며, 이러한 종교적 성격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처럼 예상되는 다섯 유형의 종교들은 北韓社會體制를 相對化하는 네가지 要因들과 연결되어 각각 독특한 형태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 종교가 북한 사회에 끼칠 영향을, 體制維持型, 體制內 改革型, 宗教 自由主義型, 抵抗的 自由主義型, 그리고 抵抗的 改革主義型과 같은 五大 機能類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體制宗教

이는 종교가 북한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보수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러한 기능은 북한 정권의 종교정책에 의하여 종교가 특성 지워질 때 나타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종교는 지금까지 북한의 종교정책에 의하여 종교활동의 한계와 방향이 허용되고 또 결정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북한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보수적인 기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북한의 극적인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기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제 보수적인 기능을 북한의 종교가 유지하게 되는 이유는 북한의 종교정책의 기본 성격에 있다. 북한의 종교 정책은 정하철의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라고 논문에서 잘 정리되고 있다.¹⁾ 이 논문은 김일성 수령의 교시를 토대로 하여, 종교는 미신이며 반혁명적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그러나 사회주

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허용하여 혁명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레닌 이후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반혁명 요인들을 필요한 만큼 허용하고 이용한다는 원칙의 일환이며, 특히 김일성의 종교 정책이 종교를 혁명과정의 수단으로 허용하는 정책적 이중성을 갖게 하는 이론적 근거인 것이다.²⁾

이러한 政策的 二重性은 북한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두가지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 아래서 나타나게 된다. 북한사회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된 윤리관이 북한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왔다. 이는 1990년 1월 1일 평양 방송에서 “자본주의 생활 양식은 혁명을 말아먹는 독약”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변하지 않는 태도이다.³⁾ 이처럼 변하지 않는 정책에는 두가지 요인이 담겨있다. 경제성장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압력, 그에 따른 경제협력에 부수되는 개방의 필요와 위협의식 사이의 갈등이 그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와의 접촉과 북한 사회의 개방에서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하여, 북한 정권은 60년대부터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서방 자유주의 사상에 국민을 면역시키는 방법으로 민족주체의식을 고취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이러한 종교정책의 이중성에 입각할 때, 종교는 외부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창구이다. 이러한 대외 창구의 역할로 북한의 종교를 국제사회에 내세우는 데 세 가지 길을 지금까지 택하였다. 국내에서는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던 시대에 많은 북조선종교연맹들의 대표들을 국제 종교회의에 참가시킨 것이 그 하나이다. 국내 언론기관에는 보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북한 또는 반한 해외 종교 인사들을 북한에 초청하여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하

고, 그들의 방문과 북한 교회의 소식을 해외언론에 크게 알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 그 두번째의 예이다. 제한된 교회를 세우려는 정책적 계획 아래 88년 이후 교회를 건설하고 북한의 종교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지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는 누명을 벗으려는 것이 그 세번째의 예이다. 비록 북한 정권이 이처럼 종교를 그들의 외교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해도, 그때마다 종교는 북한사회를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창구의 기능을 하여 왔다.

다만 이러한 북한 종교의 외부세계를 향한 窓口의 기능이 북한 종교의 자체역량의 성장 없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도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체제 보수적 기능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일종의 體制宗教로서의 체질이 지속되는 한 정책의 道具性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체제종교로서의 북한 종교는 평양 정권의 종교정책의 기반 위에서 첫째, 경제성장 둘째, 민족주체주의의 고취에 공헌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반대로 이러한 종교들은 공산권에 가장 강력한 요인들로 작용하였던 국민의 宗教的 欲求나 自由主義에 대한 渴望과 같은 새로운 정신적 태도와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당분간 무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따라서 체제 보수적 성격을 가진 북한의 체제 종교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2) 숨은 信仰共同體

공산권 변화의 일대 선풍이 고립주의에 빠져 있는 북한의 통제 장막을 넘어 국민들에게 조금씩 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외부로부터의 개혁의 소식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는 집단들이 있다면, 그중의 하나는 종교인들일 것이다. 북한에는 6.25전쟁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 까지 종교신앙 행위의 적발로 인하

여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⁴⁾ 이는 한마디로 북한에 지난 40여년 동안 소수의 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의 숨은 신앙인들은 실로 어려운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고 살아왔다. 이러한 사람들과 그들이 숨어서 연약한 관계를 맺어온 이른바 秘密集團으로서의 신앙공동체는 북한사회 밖에서의 종교생활에 관하여 심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⁵⁾ 더욱이 기독교와 불교의 경전들과 종교사상의 교리들은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한국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인식과도 거리가 먼 내용들로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인들은 북한의 사회교육의 내용과 전혀 다른 정신적 가치관을 갖고 살게되는 것이다. 이점이 북한의 종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사람들 보다도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를 지니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의 주민등록증에 각 종교의 개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종교인들을 사회 신분적으로 구별하고 탄압하는 사회에서 신앙을 몰래 지내온 종교인들의 가슴 속에 품은 희망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이다.⁶⁾ 이러한 숨은 희망은 종교인과 신앙공동체로 하여금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정책적 기획에 의하여 형성된 體制宗教가 아니라, 아직도 마음 놓지 못하고 공개되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의 信仰人들과 그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信仰 共同體에게는 상당한 變革의 바람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변혁에 의하여 자극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는 체제 종교와는 달리 평양 당국이 제일 크게 강조하는 民族主體思想을 외면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숨은 信仰共同體는 信仰의 自由가 실제의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가장 먼저 희망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하

여는 북한 밖의 공산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변혁의 요목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 하나가 자유주의의 수용을 통하여 공산 사회의 경직성이 이완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가 경제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좀 더 나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숨은 신앙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변혁의 숨결을 수용할 때, 첫째, 국민의 종교적 욕구를 보호할 것과 둘째, 자유주의를 북한 사회에서 용납할 것과 셋째,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할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세가지 요구에 민족주의가 합하여 北韓體制를 相對化시키는 四大要因이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종교 유형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體制宗教가 民族主義를 옹호하는데 반하여, 숨은 信仰共同體가 민족주의를 외면하는데는 다른 공산권 국가들과 다른 사회적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이념의 상대화 현상은 少數民族의 民族主義와 宗教가 손을 잡을 때 일어나곤 하였다. 1990년 11월에 소련연방의 국호에서 사회주의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오래 전부터 소련의 소수민족들이 공산체제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소수민족들의 대부분은 소련의 주도민족의 종교인 동방 정교회와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 루터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들이다. 언어와 역사를 달리하는 소수민족들이 짜르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복에 의하여 소련영토에 인위적으로 편입된 소수 민족들은 공산혁명 이후에도 이민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독립의지를 언제나 확인하여 주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삶의 방식이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주의와 종교가 결합할 경우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념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결속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는 소수민족주의가 존재하기 않는다는 점이 소련과 동구라파의 공산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이른바 김일성이

주장하는 主體思想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사회 구조와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주체사상 이외의 형태로 민족주의가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사회 내에서 민족주의가 제고될 때, 이는 체제보수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숨은 신앙공동체가 북한 사회 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한 체제 옹호적인 민족주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신앙공동체로써의 종교세력, 또는 개인의 신앙양심에 숨어있는 종교적 세력이 북한사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집단적 의지와 사회적 계획을 갖고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신앙공동체로서의 종교 세력은 북한 사회 체제안에서 신앙 생활의 사회적 보장,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생활의 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의 개혁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體制內的 改革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自由主義 宗教

북한 당국이 1950년대부터 해외교섭 창구의 하나로 종교를 내세웠던 점은 앞에서 누누히 언급한 바와 같다.⁷⁾ 그들은 해외에서 남한의 독재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의 통일 정책을 국제종교회의에서 예외없이 선전하였다. 이러한 대외 선전 창구로서의 종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을 전후하여 일어났다. 이는 특히 재미 반한 종교인사들을 북한에 초청하여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방북 인사들은 대체로 미국 교회에 속하거나 세계기독교연맹 WCC에 관계된 한국인과 한국교포, 그리고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주로 民族統一을 북한종교와의 접촉에서 第一義的 課題로 상정한다. 1988년 이후에는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을 구하러 평양에 갔다는 문규현신부의 종교적 태도 역시 이에 속한다.

세칭 친북한 종교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제일의적 목적은 종교적 양심에 입각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북한을 방문한 해외 교포들은 거의가 북한에서 월남한 이산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에 가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던 혈육을 만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보여 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88년의 宗教 公認政策은 해외 국제종교단체와의 지속적인 접촉의 실리에 입각해서 내려진 것이며 이 공인 정책이 體制宗教를 낳은 것이다. 이처럼 해외 종교인의 북한 방문은 정책적으로는 체제종교를 낳았고, 문화적으로는 숨은 신앙인과 신앙공동체에 어떤 자극을 주고 있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세계기독교연맹 WCC과 그 국내 대표기구인 한국기독교연맹 KNCC는 그 사상적 특성상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멀리하고 있다.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북세력은 기본적으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나 민족주체사상과 같은 형태의 민족주의에 사상적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상적 역점은 민족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과정을 앞당기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그들의 태도는 기독교의 신앙적 양심과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정치적 열망을 담은 해방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인위적인 역사에 희생된 남북분단의 억압적 상태에서부터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하는 일 곧 통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적 열정으로 받아들여 질 때, 이는 이미 민족주의의 범주를 벗어나 西洋의 自由主義의 메시지를 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북인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유주의 메시지를 북한 종교에 전해주게 된다. 자유주의는 쉽게 북한사회에 종교적 욕구를 자유스럽게 분출하는 자극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북한에 체제종교가 공인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메시지는 또한 경제생활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자극할 것이다. 경제적 불만의 자극은 여러가지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가기 전에 1만불을 먼저 내면 북한의 시골에서 살고 있는 가족을 생활이 편리한 평양으로 이주시켜 준다고 하는 조건부가 1988년대 중엽 미국 서부지역 교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고 많은 재미 교포가 북한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의 방문이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해외 종교세력의 북한 종교인과의 접촉은 민족주의를 제외한 북한 체제의 상대화 요인들을 수용하고 있다. 서방의 자유주의 메시지를 근본으로 하고, 신앙생활의 보장과 경제적 개선의 요구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외종교의 북한 접촉은 북한 종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우선 이들은 북한 종교정책이 출산한 體制宗教만을 접촉하고 있었다. 이 말은 숨은 信仰共同體를 외면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 한 예를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 연합회 KNCC가 발표한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에 대하여 국내 기독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수교단들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을 때,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회장 김성률)가 “세계 각국 기독교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남한의 보수교회를 공격하고 KNCC의 선언을 열렬히 지지하였다.⁸⁾ 이 지지 성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의 두가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이 지지 성명에는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양심이 반영된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당연하게 KNCC의 선언에는 현대 기독교인의 고백양심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 둘째, 따라서 이 글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정부당국이 기독교연맹의 이름으로 발표했거나, 아니면 당국의 눈이 무서워서 기독교 인사가 자기 양심을 이 글에 담지 못했을 것

이다. 그 어느 경우라도 이 글들이 대표하는 실체는 이른바 體制宗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해외교포 종교인들로부터 북한 당국이 외화를 구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돈을미리 받고 고향의 가족을 평양으로 이주시키는 경우, 돈을 갖고 와서 도와 줄 수 있는 해외 교포를 갖지 못한 북한의 신앙인들에게 두번의 십자가를 강요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본의 아니게 북한의 虛弱한 信仰共同體들을 와해하는 데 부채질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해외 종교단체들이 지금까지의 統一 第一義的 原理에서 북한 종교인들과 접촉하든가 또는 산발적으로 가족방문을 하는 경우, 모두 이른바 “숨은 信仰共同體”를 건강하게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결국 북한 종교의 실체를 본의 아니게 잘못파악하는 까닭에, 실체가 불분명한 북한 종교를 지원하는 결과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해외종교들의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종교의 유형이 있다면 우리는 自由主義宗教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사회에는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해외 종교단체들의 북한 접촉은 종교적 변화보다는 일반적인 자유주의 메시지를 북한사회에 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反體制宗教

남한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北韓宣敎 機構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개신교 교단에서 극동방송을 설립하여 북한과 가청 거리 안에 있는 중국과 소련의 교포들을 위한 선교방송을 시작한 이후 몇몇 개신교회 단체들만이 북한 선교에 관여하여 오다가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하여 공산권과의 교섭이 허용되고 북한과의 접촉 역시 제한된 형태이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거의 모든 종교 교단들이

자체 내에 북한선교기구를 갖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정부의 민간기구의 접촉에 대한 정책적 차이 때문에 북한 선교단체들의 활동은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 북한 단체와의 교섭을 신고하고 접촉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의 남북접촉들을 공식화하고 이에 따라 접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 정권은 남한 정부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북한의 종교단체와 남한의 종교인들이 직접 교섭하게 하려한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가 북한 선교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겨 준다.

다음으로 남한의 북한선교 단체들의 성격이 지금까지의 선교활동의 방향을 결정하여 주고있다. 북한 선교는 개신교가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가 절대다수의 보수 세력과 소수의 급진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 단체 역시 다수의 보수 단체들과 소수의 급진 단체들로 나누어진다. 급진단체들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교회연합회 KNCC와 해외 교포 방북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기관들이며, 이들의 활동에 관하여는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절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수교단의 선교단체들은 한국 기독교회가 지녀온 반공이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따른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이들 선교단체들을 초청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종교인들이 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북한선교단체들은 실질적인 선교 활동은 불가능하고, 북한선교를 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 개신교 이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불교와 천도교 그리고 원불교가 각각 설립한 포교기관들이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다만 가톨릭 교회는 그 국제적인 기구를 갖고 있는 점이 개

신교와 기타 종교들과 다르기 때문에 교황청의 국제 외교경로를 통하여 평양에 천주교회를 건립하게 하여줄 수 있었다. 교회법상 평양의 천주교는 마땅히 서울 대교구에 속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회도 그 이상의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선교 활동은 선교사를 파견하던가 아니면 종교문서나 종교활동 지원금을 피선교 국가의 지명된 종교 단체나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남한의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북한에서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자국 내에서 외국 선교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모든 공산국가에 마찬가지로 이다. 따라서 금년에 와서는 한국 여행자들 가운데 종교인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외교적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개방되어가는 공산국가들도 아직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더더욱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體制宗教의 支援이다.

북한 선교단체들이 북한 체제종교의 지원을 얼마나 원하는가에 북한 선교의 가능성이 가름된다. 지금까지 남한에 있는 북한 선교 단체들은 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기독교의 선교적 사명과 통일의 염원이 종합된 인식에서 북한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적인 선교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여 왔다. 다만 북한 당국이 북한에 대한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秘密通路를 찾아 정상적인 선교활동 내용을 피려고 하여왔다. 그리하여 전파 방송을 통한 원격 선교, 중국 조선족 사회의 중간 경로를 통한 성경의 간접보급과 같은 활동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비밀통로와 간접접촉을 통한 선교 활동이 실효를 거두어서 북한에 있

는 종교인들에게 영향을 줄 경우 이들 북한 종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게 될까 하는 점을 아직까지 아무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 경우 북한 종교인들은 남한 선교단체의 보수적인 메시지로 재무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종교인들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북한에 체제를 거부하는 反體制宗教人이 되거나 당국으로 부터 반체제 종교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의 활동 계획은 본의 아니게도 북한에 반체제 종교인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점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종교인들을 경계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북한과 같은 엄격한 통제사회에서 반체제 종교가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기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이에 비하여 북한의 종교정책은 너무나 치밀하고 위력적이다. 다만, 전쟁이나 혁명과 같이 북한사회가 근본적으로 도산되는 상황에서는 소수 반체제 종교인들이 공산체제 전복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남한의 종교단체들을 포함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두가 원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체제종교가 북한사회를 변화하는데 공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의 경제문제를 개선한다든가 북한의 경제침체에서는 오는 문제들과 관계하여 북한의 선교활동을 전개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북한선교는 주로 북한에서의 종교적 욕구를 보다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반공산주의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전파하며, 끝으로 같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식의 고취, 이러한 세가지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북한 선교의 주류가 非政治的이고 純粹한 宗教的 動機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동기가 결과적으로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북한종교를 낳게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5) 自立宗教

경제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벗어나, 다시 말해서 政治體制에 대한 의식과 거리를 두고 宗教的 欲求와 自由主義 그리고 民族主義가 강조되면서도 앞에서 살펴본 反體制宗教와 다른 종교형태가 북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우리는 自立宗教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해외 종교단체의 영향 아래 나타날 自由主義 宗教와, 남한의 선교활동에 영향받아 태어나는 反體制宗教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에 존재하는 종교이기 보다는 실존하고 있는 북한의 信仰共同體가 외부로부터의 영향아래 지나게 될 사상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실존하는 종교단체는 보이지 않는 信仰共同體뿐이다. 이 숨어있는 공동체가 당국의 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화될 때 체제종교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와 반체제의 색깔로 채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북한종교의 실체, 숨어 지내온 소수의 신앙인들과 그들 사이의 얽은 유대관계, 이른바 信仰共同體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신앙인들은 적어도 88년 종교공인 이전까지는 그들의 종교의례를 공개적으로 행하지 못하였다. 가정교회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언론에는 소개가 되지 않고 국외 언론에만 소개됐다는 점이, 가정교회가 당국의 허용아래 제한된 형태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는 일종의 準秘密集會의 성격을 지닌다. 중요한 점은, 40여년동안 숨어 살던 信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북한사회 안에서는 알려지지 않게 집회를 가질 것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88년부터는 평양에 새로 지은 두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북한종교의 실체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신앙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信仰人과 그들의 연약한 공동체는 북한 정권의 종교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공산권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난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해방 이전부터 신앙인들이었다. 해방이후 공산 정권에 의하여 종교가 거의 말살된 가운데 소수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던 신앙의 숨결이, 다시 북한 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체제종교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北韓宗教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信仰共同體와 體制宗教의 두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신앙은 기본적으로 지상권력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유일사상의 설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체제종교 안에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북한 정권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종교의 조직과 조직 운영권이지 종교적 교리와 신앙의 양심은 아니다. 북한 종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와 불교의 사상적 원리는 북한의 정치적 이념인 공산주의와 특히 김일성의 유일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다만 分配正義에 관계된 사회윤리의 실현에 관계된 부분에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을 뿐이다. 서양 현대사상에서 오랜 주제로 등장하여온 문제이지만, 윤리적 가치가 종교의 전부도 아니고 또 그 본질도 아니다. 그러므로 공산정권이 종교가 지닌 윤리적 측면을 들어 종교로 하여금 사회주의 실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지만, 종교의 참여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종교는 공산주의 이념을 초월한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려하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의 분배정의 이념을 종교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며 수단으로 여긴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종교의 근본적 신념체계와 개인의 신앙내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앙공동체라고 말할수 있

을 것이다. 신앙공동체가 북한사회에서 노출된 것은 공산사회의 변혁과 경제개선의 필요 때문에 평양 당국이 종교를 이용한데서 비롯된다. 이처럼 북한에서 대외관계를 위하여 제도종교의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體制宗教가 成長하는 것은 북한 當局이 統制 不可能한 사회적 要因이 擴大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體制宗教의 성장에는 이러한 갈등이 구조적으로 내장되어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국 보다는 신앙인들과 그 공동체가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마련이다. 북한이 점점 외부 세계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산세계의 붕괴현상에서 얻은 교훈과 서방의 자유주의 숨결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며, 이 때 이러한 변혁의 숨결을 제일 먼저 수용할 수 있는 집단은 신앙인들과 그 공동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뼈저리게 정신적 갈등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당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精神的 價値의 獨立性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세계에 대한 開放의 불가피한 過程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制度宗教가 擴散되는 과정 속에서 제도종교의 숨은 실체인 信仰人들의 良心이 그들의 共同體의 主體性을 의식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종교로 하여금 당국의 통제로 부터 점점 벗어나서 북한 종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숨은 신앙공동체”가 스스로 自立宗教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북한의 사회적 조건과 북한 종교인들의 오랜 정신적 시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自立宗教가 해외 종교단체나 남한의 선교단체들의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에 힘입어 그 성격이 결정될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 당국이 그것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으로 북한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켜온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평등이상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자유주의 종교나 반체제종교를 쉽게 선택하리라고 기대되지 않기 때

문이다. 이점은 북한의 종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 북한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서나 수기가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40여년동안 그토록 혹독한 종교 탄압정책 밑에서 험한 시련을 거쳐오면서 남한 종교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祈福的인 動機를 가지고 있을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아들을 낳고, 먹고 입을 것을 구하고, 치병을 구하며, 재물과 명예를 얻기위한 祈福信仰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迷信이라 일축된 지 오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복의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에 김일성 수령이 해결해주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북한 국민들이 살도록 교육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을 지켜온 북한의 종교인들의 신념 내용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들의 신앙을 지켜온 신념체계는 지상의 질서와 신의 섭리에 의하여 올 하늘의 질서, 현상적 질서의 무명에 싸인 혼돈과 지혜의 눈에 보이는 불법의 질서, 이러한 두가지 다른 질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 차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열망들이 종교적 조직의 힘이나 신도집단의 감성적 열기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환상을 지니고 있기에는 그들이 역사속에서 받은 시련이 너무나 크고 오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크고 긴 시련을 거쳐서 지켜온 신앙인들은 그들의 신앙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강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온 나름의 신앙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그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⁹⁾

이러한 강한 신앙적 자긍심이 아마도 북한의 自立宗教가 갖게 될 사상과 활동의 방향을 가름하게 하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 있게 될 자립종교는 아마

도 홍위병사건에서 스스로를 건져낸 중국교회의 이른자 三自運動의 정신적 태도와 교회 운영의 성격을 많이 닮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⁰⁾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부터의 경제적 또는 신앙적 원조에 의하여 중국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과 경제적문제 그리고 사상까지 명실공히 중국기독교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북한의 종교인들에게는 큰 시사를 줄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때 북한 당국으로 부터의 지나친 통제도 피할 수 있고, 또 그 크고 긴 시련을 거친 신앙공동체의 정신적 주체의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주적인 사상과 활동을 지키는 自立宗教가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자립 종교는 북한의 사회 변화와 그 성장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자립종교의 성장은 북한 사회 변혁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앞에서 누누히 지적하였듯이 신앙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공산세계 변화에 대한 가장 민감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해외 종교단체들과 남한의 선교단체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접촉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리고 당국으로 부터의 참여의 권유를 받아온 사람들이며 그 공동체이다. 이처럼 북한의 종교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社會變革要因의 綜合的 實體로서의 종교가 안으로는 북한 당국의 통제로 부터의 자율을 지키고, 밖으로는 외부로 부터의 일방적 선교활동 권유에서 부터의 자율을 지킬 때, 북한 사회의 변혁의 방향을 가름하는데 그 어느 사회적 집단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註〉

1)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로동당 출판사, 1959.

2) 김일성, 『사업총화와 과업에 대해』, 사회안전부, 1974, 198쪽.

여기서 그는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데 합세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종교조직들을 만들고”있다고 말하면서 또 “.....그대로하면 됩니다. 나이많은 늙다리 종교쟁이들은 죽어야 그 버릇을 고칩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자비하게 없애야 합니다.....그 중에서도 악질은 제거하고 피동분자들 특히 적대계급 출신자들인 경우는 모두 수용소에 가두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

3) 조선일보(90년 11월 6일) : 12면.

4) 고태우, 106~198쪽.

5) 예를 들어, 1989년 가을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교민들이 미화 일만불을 가지고 북한에 가면, 그의 가족을 시골에서 부터 살기가 나은 평양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교민들이 이런 조건으로 북한에 갔다. 북한에 갔던 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았던 북한 사람들 역시 과거의 교인이든가 아니면 숨은 교인들 것이다. 이러한 숨은 교인들이 해외 교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다.

6) 윤이흠, 518~519쪽.

7) 고태우, 126쪽.

각종 종교 단체의 연도별 출현 상황

단 체 명	출 현 상 황															
	46	47	48	49	51	54	55	57	60	61	62	63	64	66~72	74~현재	
북조선 기독교 연맹	0	0	0	0	0	0	0	0								
기독교 민주동맹			0	0	0											
남조선 기독교 민주동맹						0	0									
남조선 기독교 동맹									0	0	0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북조선 불교도 총연맹	0	0	0													
북조선 불교연합회			0													
북조선 불교도 연맹				0	0	0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							0	0	0	0	0	0	0		0	

단 체 명	출 현 상 황															
	46	47	48	49	51	54	55	57	60	61	62	63	64	66~72	74~현재	
남조선 불교도 연맹	0	0	0	0												
북조선 불교총무원	0	0	0	0												
천도교 북조선 총무원				0												
천도교회 중앙지도 위원회																
전국유교연맹		0	0	0	0	0	0	0								

* 비교 ; 조선기독교도(불교)연맹과 조선 기독교도(불교)연맹 중앙위원회는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 단체임

* 자료 ; <내외통신> 322호, 1983. 3. 11.

- 8) 윤이흠, 「북한의 종교실태」, 『통일문제연구』 (1989, 여름호), 222~225쪽.
- 9) 이점은 특히 북한에 대한 宣敎 政策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신앙인들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은 선교정책은 두가지 면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소수 신앙인들의 정신적 고립과 갈등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며, 둘째로 이는 북한 종교인들의 북한에서의 지위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선교는 북한에서의 신앙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그 일의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0) 중국의 三自運動은 自立, 自養, 自傳이라는 기치를 걸고 외세의 영향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경제적인 문제등을 해결하며, 선교등도 자신이 스스로 하는 일종의 외세 배척운동이다. 이것은 식민주의와 선교가 밀접히 관련 맺고 있었던 중국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많은 선교사와 바티칸의 간섭사례를 거론하여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우에도 아직 이들의 전통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교류자체들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三自運動과 최근의 사건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로만 말렉 편, 『중국 천주교회』, 정한교역, 분도출판사, 1988, 83~103쪽 ; 羅竹 風編, 55~60쪽.

4. 結論 : 北韓의 開放과 宗教의 自律性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종교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우리의 논의는 먼저, 공산주의 체제를 상대화시키는 네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종교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 네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북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유형을 찾아서 각 유형이 지니게 될 사상과 활동의 특성들을 찾아 보았다.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종 교 유 형	수 용 요 인 우 선 순 위	배 제 요 인
1. 체 제 종 교	경제개선, 민족주의	종교적 욕구, 자유주의
2. 신 앙 공 동 체	자유주의, 경제개선, 종교적 욕구	민족주의
3. 자유주의 종교	종교적 욕구, 자유주의, 경제개선	민족주의
4. 반 체 제 종 교	종교적 욕구, 자유주의, 민족주의	경제개선
5. 자 립 종 교	종교적 욕구, 자유주의, 민족주의	경제개선

체제종교는 북한당국의 종교정책에 의하여 태어난 종교조직을 지칭하며, 신앙공동체는 숨어있는 연약한 공동체가 공산권의 변화에 힘입어 천천히 활력을 얻어가는 북한종교의 실체를 가르치며, 자유주의 종교란 해외 종교단체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종교이며, 반체제 종교란 남한의 선교정책에 의하여 태어날지도 모르는 북한의 종교를 지칭하고, 자립종교란 북한 종교의 실체인 신앙공동체가 안으로는 북한 당국의 규제에서부터 자율을 찾고 밖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선교적권유에서부터 주체성을 갖는 종교를 의미한다.

위의 유형들은 현재 북한의 사회적 조건에 근거하여 지금 있거나 또는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형태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종교들이 북한 사회

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형성 조건이 다른 각각의 유형들은 독특한 사상적 특성과 북한사회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상과 대사회적 태도의 특성들에 관하여 앞 장에서 충분히 밝혔다.

앞의 도표에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다섯개의 종교 유형들이 그들의 思想的 特性에 따라 크게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宗教的 欲求와 自由主義가 체제종교에서는 수용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그외의 네가지 유형들에는 모두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종교가 지금과 또 앞으로는 체제종교와 그외의 종교들로 구분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외의 종교들은 民族主義와 經濟改善의 두가지 요인들을 각각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데 따라서 그 사상적 경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에는 “숨은 신앙공동체”가 모든 종교유형의 실체이다. 신앙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종교를 대외 교섭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위장 종교단체들을 국제회의에 파견하여왔고 또한 몇개의 제한된 교회를 평양에 건립하고 묘향산의 불교사찰을 국제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이른바 체제종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는 숨은 信仰 共同體가 體制宗教와 현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해외 종교단체들이나 남한의 선교단체들에 의하여 태어나거나 새로 성격지워질 유형의 종교, 이룸하여 被宣敎宗教는 그 실현성이 상당한 기간 동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북한의 당국의 종교정책과 신앙공동체의 사상적 특성을 연결하여 볼 때, 피선교종교를 선교활동을 수용할 북한의 정권과 종교가 모두 쉽게 용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북한 종교의 흐름은 신앙공동체와 체제종교와의 관계에 의하여 방향지워질 것이다.

종교의 지상정권에 대한 초월성의 신념과 북한당국의 종교 통제의 한계성이

라는 이중의 이유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제종교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북한 종교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당국의 통제로부터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외부 선교활동으로 부터의 사상적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自立宗教로 지금의 종교가 진행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체제종교의 실체인 信仰共同體가 그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들어내는 文化的 過程이다.

현재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인 체제종교가 자립종교로 전환하는 과정이 88년 종교공인 정책이후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종교와 반체제종교의 특성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는 하겠지만 이들은 결코, 북한에서 극적인 사회변동이 없는 한, 북한 종교 변화의 주요 변수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體制宗教에서 自立宗教로 넘어가는 과정이 북한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미 앞에서 종교가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을 相對化하고, 따라서 북한의 유일체제를 다변화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공산체제를 상대화하고 또 多變化하는 데 종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자립종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종교인들은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상과 사회적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각성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사실을 북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처럼 북한 정권을 상대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유일사상만이 북한사회에서 기능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 기독교와 불교의 세계관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다변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이념의 상대화와 사회체제의 다변화는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하는 관건이다. 상대화와 다변화의 이념적 실체인 자립종교가 그 모습을 들어내게 될

때 북한사회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북한 사회의 개방의 정도는 북한에 종교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의 정도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북한사회의 개방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1988

_____, 『북년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은석출판사

극동문제연구소, 〈소련·동유럽총람〉, 1989

손병락, 『자본주의 공산주의』, 동아출판사, 1990

로만 말렉 편, 『중국 천주교회』, 정한교 역, 분도출판사, 1987

로버트 오어 『현대중국의 종교』, 신대균 역, 路出版, 1987

嵯峨 洌, 『소련사회는 변화하는가』, 신승권 역, 예진, 1980

羅竹風 編,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 上海社會科學出版社, 1987

Richard C. Bush, *Religion in Communist China*, Abingdon Press : Nashville,
1969

Victor Zaslavsky and Robert J. Brym, *Soviet-Jewish Emigration and Soviet
Nationality Policy*,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3

Geoffrey Hosking,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蘇聯史』, 김영석 譯, 홍익
사, 1988

Gary MacEoin, *Communist War on Religion*, New York : The Evine-Adair
Company, 1951

Pedro Ramet ed.,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Deke Uni. Press, 1984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On Religion*, Schocken Books, New York,
1964

V. I. Lenin, *On Religion*, Progress Publishers, Moscow, 1965

V. Stanley Vardys, "Catholicism in Lithuania", *Aspects of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ed. by Richard H. Marshall, Chicago Uni. Press, 1971

2. 論 文

김세균 외, 「오늘의 사회주의 : 위기인가 전진인가」, 『사회와 사상』, (1990. 1)

통권 17호

김세원, 「대의 경제 관계와 '딜레마」, 『북한개론』,

김일성, 「사업총화와 과업에 대해」, 사회안전부, 1974, 198쪽

윤이흠, 「종교 단체와 종교 생활」,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북한의 종교실태」, 『통일문제연구』 (1989. 여름호)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로동당출판사, 1959

키무라 히데수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한인」, 서대숙, 『소비에

트 한인백년사』, 태암, 1989

梶村 昇, 「イデオギー-社會の宗教-中國の場合」, 海外事情, (1989, 10)

堀 健三, 「ソ連における民族主義の擡頭」, 海外事情 (1989. 4)

3. 신 문

기독교신문(1988.10. 30)

기독교신문(1989.12. 31)

기독교연합신문(1988.11. 13)

기독교연합신문(1989.11. 26)

동아일보(1990. 10. 17)

복음신문(1988. 9. 21)

복음신문(1988. 10. 9)
복음신문(1988. 11. 13)
복음신문(1989. 3. 12)
복음신문(1989. 11. 5)
세계일보(1990. 3. 13)
카톨릭신문(1988. 7. 10, 1988. 7. 17)
카톨릭신문(1988. 11. 27)
카톨릭신문(1989. 6. 11)
크리스찬신문(1988. 10. 7)
크리스찬신문(1989. 10. 8)
크리스찬신문(1989. 11. 25)
크리스찬신문(1990. 5. 19)
한겨레신문(1988. 10. 22)
한겨레신문(1988. 11. 20)
한겨레신문(1989. 4. 26)
한국교회신문(1989. 5. 28)
한국일보(1989. 1. 15)
한국일보(1989. 9. 19)

